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h1>보도자료</h1>	
보도일시	2024. 4. 22.(월) 배포 즉시		총 8쪽(첨부 5쪽 포함)
문의	홍보담당	기반조성팀	박혜주 차장 02-580-3282
	사업담당	공연사업팀	김규량 사원 02-580-3283

연희자의 뒤편! 관객을 위한 놀판! 모두 살맛 나는 살판! - 2024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개최 -

- 5. 18.(토)~19.(일), 청와대 일원에서 2024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열려
- 농악, 줄타기, 탈춤 등 전통연희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 전통연희의 미래인 대학생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인들까지 한자리에
- 인형 만들기 등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전통연희심포지엄' 등 부대행사 마련



축제명	2024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축제기간	2024. 5. 18.(토) ~ 5. 19.(일) / 2일간	
장소	청와대 일원	
주최/주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	청와대재단	
예약안내	선착순 사전 예약 (www.kotpa.org)	
관람료	무료	
축제일정	5. 18.(토) 13:00 <연희 대학전> 14:00 <길 The Way> 14:40 <하회별신굿탈놀이> 15:10 <진도다시래기> 15:50 <전주기접놀이> 16:20 <구미무용농악> 16:50 <악단광칠 배우취리!>	
	5. 19.(일) 13:00 <추리밴드> 13:30 <이 땅의 울림:북놀이> 14:30 <이슬처럼, 번개처럼> 15:10 <남창동의 판줄> 15:50 <거장, 노닐다> 16:50 <집단신명:어울림 풍장>	
	영상공개 채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네이버TV, 유튜브
	공연문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02-580-3283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주최·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이하 전통연희축제)가 오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청와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통연희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전통연희축제는 매년 2만여 명이 찾는 대규모 야외축제로 2007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남녀노소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전통연희축제는 청와대 내 헬기장과 녹지원 두 곳에서 진행된다. '연희路, 미래路'라는 컨셉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통연희의 아름다움과 미래 가능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예술대학교X세한대학교X중앙대학교X한국예술종합학교' 총 4개 대학이 연합하여 선보이는 <연희 대학전> 무대가 뜨거운 축제의 막을 올린다.

이어 농악, 무속음악, 줄타기, 탈춤 등 전통연희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각 지역의 개성 있는 흥과 에너지를 선보일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진도다시래기보존회', '전주기접놀이보존회', '구미무용농악보존회'와 '구미무용농악 북놀이X밀양백중놀이 오북놀이X진도북놀이X진주삼천포농악 북놀이'가 신명을 깨운다. '김운태X이동주', '남창동X예인집단 아재'의 기예 공연과 전통연희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창작공연을 펼치 온 '국악단 소리개', '악단광칠', '연희점추리'의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사물놀이 대중화의 주역인 1세대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함께하는 '임동창&옛·새'의 협동 공연과 '논산두레풍장X사물놀이 느닷'의 무대도 기대를 모은다.

축제기획단의 김주홍 예술감독은 "이번 축제가 전통연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킬 뿐 아니라, 참여 예술가와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김삼진 이사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인과 차세대 연희자들을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축제의 사회는 전공인 판소리 개그로 인기를 끈 개그맨 김희원과 국악 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진행자인 소리꾼 김봉영이 맡아 이틀간 무대를 이끌어간다. 신명 나는 공연뿐만 아니라 '유쾌한 악당'의 <악기소리 그리기>, '연희공방 음마갱'의 <덜미인형 만들기> 등 축제 마스코트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2024 전통연희활성화 심포지엄'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전통연희축제 현장 공연은 전석 무료로, 축제 관련 상세정보 확인과 관람 신청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www.kotpa.org)에서 가능하다.(문의 02-580-3283)

붙임 1. 2024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개요 4
 2. 2024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출연진 및 공연 소개 5




붙임 1 2024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개요

□ 2024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일정

기간 : 5월 18일(토) ~ 19일(일) 2일간 | 장소 : 청와대 일원(헬기장, 녹지원)

일시	장소	단체명	공연명
5. 18. (토) 1일차	13:00	연희로 (헬기장)	<연희 대학전> 서울예술대학교X세한대학교X중앙대학교X한국예술종합학교
	14:00	미래로 (녹지원)	<길 - The Way> 국악단 소리개
	14:40	연희로	<하회별신굿탈놀이> (사)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
	15:10	미래로	<진도다시래기> (사)진도다시래기보존회
	15:50	연희로	<전주기접놀이>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
	16:20		<구미무용농악> (사)구미무용농악보존회
	16:50	미래로	<악단광칠 매우취라!> 악단광칠
5. 19. (일) 2일차	13:00	미래로	<추리밴드> 연희점추리
	13:30	연희로	<이 땅의 울림:북놀이> 구미무용농악 북놀이X 밀양백중놀이 오북놀이X 진도북놀이X 진주삼천포농악 북놀이
	14:30	미래로	<이슬처럼, 번개처럼> 김운태X이동주
	15:10	연희로	<남창동의 판줄> 남창동X예인집단 아재
	15:50	미래로	<거장, 노닐다> 김덕수패 사물놀이X임동창X옛.새
	16:50	연희로	<집단신명: 어울림 풍장> 논산두레풍장X사물놀이 느닷
5. 18. (토)~ 19(일).	12:30~ 17:30	연희로 체험부스	체험프로그램 <악기소리 그리기> <덜미인형 만들기> 유쾌한악당 연희공방 음마갱
5. 18. (토)	18:00	홍보관 교육장	2024 전통연희활성화 심포지엄 '굿! 본류에서 부는 바람'

붙임 2 **2024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출연진 및 공연 소개**

<p>5. 18.(토) 13:00 연희로(헬기장) / <연희 대학전> - 서울예대X세한대X중앙대X한예중</p>	
	<p>4개 대학이 연합하여 하나의 호흡과 두드림으로 펼치는 뜨거운 연합판굿!</p>
	<p>유구한 역사를 지나오며 우리 조상들은 연희라는 장르로 삶의 '희노애락'을 은유와 상징, 해학적 방법으로 두드리고 노래하고 춤추었다. 이러한 학습의 최전선에서 대학의 청년 연희자들이 펼치는 뜨거운 무대 연희 대학전!</p>
	<p>[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전공] <판놀이></p> <p>[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 <진주삼천포농악></p> <p>[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판승></p> <p>[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연희과] <경북농악></p>
<p>5. 18.(토) 14:00 미래로(녹지원) / <길 - The Way> - 국악단 소리개</p>	
	<p>2011년 창단한 사단법인 국악단 소리개는 판소리 명창 서명희와 사물놀이 상쇠 이영광을 중심으로 재즈와 극(劇)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창작 작품을 추구하는 전문 공연 예술 단체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의 전통 판소리와 사물놀이 그리고 재즈가 만나 우리네 진솔한 삶의 이야기이자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 희로애락을 '길'이라는 주제로 풀어내 소통하려 한다.</p>

<p>5. 18.(토) 14:40 연희로 / <하회별신굿탈놀이> - (사)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p>	
	<p>하회별신굿탈놀이는 지배계층인 양반과 선비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지배계층인 양반과 피지배계층인 상민 간의 관계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중의 파계를 통하여 당시 불교의 타락상과 종교의 허구성을 비판, 상민들의 삶의 애환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 공연이다.</p>
<p>5. 18.(토) 15:10 미래로 / <진도다시래기> - (사)진도다시래기보존회</p>	
	<p>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례 때 무당단체인 신청(神廳)을 중심으로 조직된 전문 예능인들에 의해 전승된 민속극으로 장례 풍속과 민속극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기 위해 전문 예능인들을 불러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사물악기에 맞추어 노래와 춤, 그리고 익살맞은 재담 등을 하며 민속 가무극으로 연극성이 가장 짙은 놀이이다.</p>
<p>5. 18.(토) 15:50 연희로 / <진주기집놀이> - (사)진주기집놀이보존회</p>	
	<p>전주 기집놀이의 원형인 합굿맞이와 용기놀이는 전라도의 수부이며 곡창 지대의 대표격인 전주의 위상과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이다. 전주부 우전면 계룡리 일대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민속놀이로 6m에 달하는 거대한 용깃발 놀이를 무대 판굿으로 재해석하여 역동적이고 장쾌한 우리 민속의 흥과 에너지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p>
<p>5. 18.(토) 16:20 연희로 / <구미무을농악> - (사)구미무을농악보존회</p>	
	<p>구미무을농악은 군악설, 불교설, 농악설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북과 소고 놀음이 발달하여 웅장한 예술적 묘미를 더한다. 전체적인 흐름이 강직하고 힘이 넘치는 경상도 특유의 꾀꾀함과 흥을 지니고 있으며 경상도의 특색이 뚜렷한 농악 중 하나이다.</p>
<p>5. 18.(토) 16:50 미래로 / <악단광칠 매우취라!> - 악단광칠</p>	
	<p>관객을 무아지경으로 만드는 현대적인 굿판! 미지의 영역인 황해도 지역의 옛 민요와 굿 음악을 무대화했다. '신'과 함께하는 신명의 공간인 이 굿, 공연장에 모인 모두의 안녕을 빌어주고 함께 '미치고 팔짝 뛰는' 전통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만나본다.</p>

5. 19.(일) 13:00 미래로 / <추리밴드> - 연희점추리



'음악에 있어 전통문화의 형태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은 어떤 형태를 가질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추리밴드> 프로젝트는 전통연희와 현대음악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고 동시에 연희점추리만의 개성과 색을 담아냈다.

5. 19.(일) 13:30 연희로 / <이 땅의 울림:복놀이> - 구미무용농악 복놀이 X 밀양백중놀이 오복놀이 X 진도복놀이 X 진주삼천포농악 복놀이



각자의 색깔과 그 색의 화합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와 나. 복은 인류 역사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사용됐다. 원시 시대에는 신을 경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고, 농경 사회에서는 노동의 흥을 돋웠으며, 전쟁에서는 복소리가 병사들의 단결과 용기를 북돋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복이 사람의 심장 소리에 가장 가까운 악기였기 때문이다. <이 땅의 울림>은 네 지역의 복놀이를 통해 이 땅에 다양한 울림을 이야기한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본능을 깨워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신명을 마주할 수 있는 공연이다.



5. 19.(일) 14:30 미래로 / <이슬처럼, 번개처럼> - 김운태 X 이동주



김운태의 채상소고춤은 유랑농악단 시절 익힌 호남농악의 장단과 영남농악의 기예를 기본에 두고 옷다리(경기 충청) 가락을 가미하여 자신의 바다를 만든 것인데, 현재 가장 멋스러운 채상소고춤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동주의 옷다리 소고놀이는 약간의 춤과 더불어 마지막에 나오는 자반뒤집기가 소고놀이의 꽃이라 할 수 있다.

5. 19.(일) 15:10 연희로 / <남창동의 판줄> - 남창동 X 예인집단 아재



죽을 판 살판이라!
줄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줄광대와 밑에서 재담을 받아주는 어릿광대가 함께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공연이다. 광대들의 익살스러운 재담에는 웃음을 악사들의 신나는 연주에는 흥을 줄광대의 묘기에는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한국 고유의 전통예술 공연이다.

5. 19.(일) 15:50 미래로 / <거장, 노닐다> - 김덕수패 사물놀이 X 임동창 X 옛새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임동창 그리고 옛새의 만남! 옛새는 옛것의 얼을 바로 세우고, 바른 얼을 바탕으로 나다운 새로운 음악을 창조한다는 의미의 옛새는 정상급 국악인들이 모인 명인명창 국악그룹이다. 문굿과 길놀이를 시작으로- 김덕수·임동창 두 거장의 즉흥연주는 물론 수제천, 길군악, 농악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작연주가 선보여진다.



5. 19.(일) 16:50 연희로 / <집단신명:어울림 풍장> - 논산두레풍장 X 사물놀이 느닷



말뚝을 박아 놓은 듯 제자리에 서서 친다고 하여 이름 붙은 '제자리풍장(논산두레풍장)'의 마을 신명! 느닷없이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느닷 사물놀이'의 경쾌하고 박진감 넘치는 도시 신명! 2024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대미를 장식할 전대미문,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신명 퍼포먼스!

